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2018년 1월 27일(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1.26.(금)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1. 26.(금)	담당부서	자원개발전략과
담당과장	이승렬 과장(044-203-5140) 윤정원 팀장(044-203-5150)	담 당 자	문준선 서기관(044-203-5141) 김은성 사무관(044-203-5151)

제2차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전체회의 개최

- 하베스트, 볼레오 사업의 부실사례를 점검하고 집중 검토
- 별도 분과를 신설하여 과거 부실발생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 추진
- 향후 분과위 워크숍 등 집중토론을 통해 TF 권고안 마련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1.26.(금) 14:00,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차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제2차 회의에서 테스크포스(TF)는 하베스트, 볼레오 사업의 관리부실 사례를 점검하고, 원인규명 분과 신설 등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 테스크포스(TF)는 작년 착수회의(11.29)와 석유·가스·광물 분과별 회의(12.11~12)를 통해 부실 사례를 추가로 발견하는 등 점검을 지속해왔다.

○ 이번 회의에서는 석유공사와 광물공사가 보고한 하베스트와 볼레오 사업에 대해 테스크포스(TF) 위원은 매입 후 관리부실 사례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사의 진지한 반성과 개선노력을 주문했다.

【 하베스트 】

○ 오일샌드 생산시설(Blackgold) 건설 시 총액계약 방식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을 변경해줌으로써 건설비가 당초 계약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계약관리상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 가스 처리시설(Bilbo plant) 건설 시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부실 설계로 제품의 품질저하를 초래하였으며, 패널티(1백만 달러)를 받는 상황에서도 이를 장기간 방치하는 등 운영 관리도 미숙했다.

○ 파이프라인 등 사용 시 계약된 약정물량을 충족하지 못해 위약금(3년간 10백만 달러)을 지불하는 등 공급예측 및 생산관리 능력이 부족했다.

○ 정유공장(NARL)을 '14년에 매각하였으나, 석유재고 금액(3백만 달러)은 미수취하고 원유탱크 수리비용 추가지불을 요구받는 등 현재까지도 사후처리가 미흡하다.

【 볼레오 】

○ 황, 디젤 등 재고자산이 광물공사(자회사)내 부서 간에도 2배 이상 차이나게 관리되는 등 재고자산 관리가 부실했다.

○ 볼레오 관련 수의계약액은 7억 달러에 달하며, 5만 달러 이상 대형 계약건들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처리되는 등 회계처리가 불투명했다.

○ 증빙자료(회계장부) 미비 등으로 부가세 환급(78백만 달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세무 관리도 매우 부실했다.

○ 미사용 항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무제한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다.

□ 테스크포스(TF) 위원은 이러한 부실사례들을 공사가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한 이후에도 후속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부실이 지속 내지 악화된 측면을 간과할 수 없으며,

○ 경영견제 및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할 이사회도 하베스트, 볼레오 관련 이사회 상정안건(29건)들을 사실상 원안 의결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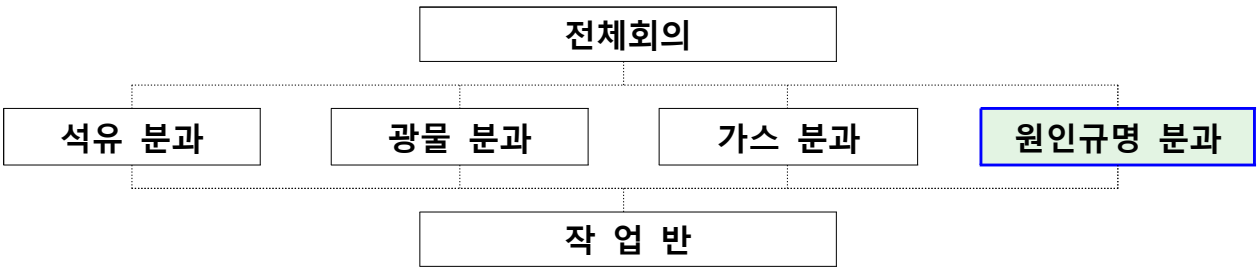
* '08년 이후 양 공사의 신규사업 투자 결정 관련 이사회 상정안건(36건)도 대부분(33건) 원안 의결되었고, 나머지 안건(3건)들도 단순 자구수정 후 원안을 수용

□ 테스크포스(TF)는 과거 부실이 발생한 원인과 책임을 보다 철저한 규명을 위해 별도 분과를 신설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 기존에 석유, 광물, 가스 분과에서 수행하던 점검업무를 별도 분과에서 수행

○ 신설 분과장은 고기영 한신대 교수가 맡아 부실사례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향후 백서를 작성하여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 TF 운영 체계 >



□ 테스크포스(TF)는 3개 공사 사업 재평가와 관련하여 작업반(지질자원연구원)에 정책 연구용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 향후 분과위 워크숍 등 집중 토론을 통해 자산처리 방향 등에 관한 테스크포스(TF)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박중구 위원장은 “이번 테스크포스(TF)는 공기업 부실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테스크포스(TF)는 지질자원연구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문준선 서기관(☎ 044-203-51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제2차 해외자원개발 혁신TF 개최계획**

*** 회의는 비공개**

□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18.1.26(금) 14:00～16:00, 한국기술센터(21F)**

○ **참석** :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위원장) 등 민간위원,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 기재부 공공정책국

○ **내용** : TF 현황 및 계획, 분과 신설 및 운영방안 등 보고
주요사업 자체점검 결과 등 토론

□ 세부계획

○ **모두말씀('5)** (위원장)

○ **보고안건('25)**

- TF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위원장)
- 신설 분과 운영계획 (분과장)
- 정책 연구용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지자연)

○ **토론안건('35)**

- 캐나다 하베스트 자체점검 결과 (석유공사)
- 멕시코 볼레오 사업 자체점검 결과 (광물공사)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60)**